


<div>  <div> <div>해양수산부</div> <div> <div>보도자료</div> <div>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</div> </div> </div> </div>			
<div> <div>보도 일시</div> <div>2023. 3. 23.(목) 조간 2023. 3. 22.(수) 11:00</div> </div>	<div> <div>배 포 일시</div> <div>2023. 3. 22.(수) 06:00</div> </div>		
<div> <div>담당 부서</div> <div>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</div> </div>	<div> <div>책임자</div> <div>과 장 최성용 (044-200-5810)</div> </div>	<div> <div>담당자</div> <div>사무관 김희곤 (044-200-5825)</div> </div>	

국제해사기구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

- 해수부, 강원도 강릉에서 제17차 국제해사협의회 개최 -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3월 23일(목)부터 24일(금)까지 2일간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‘제17차 국제해사협의회’를 개최한다.

‘국제해사협의회’는 국제해사기구(IMO)가 관장하는 국제기준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유관기관, 교육기관 및 산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201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.

※ IMO(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) : 국제연합(UN) 산하의 전문기구로서 해운·조선에 영향을 미치는 해상안전, 보안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관장하며, IMO에서 결정되는 각 협약, 결의서 등은 우리나라 해운·조선 분야에 영향을 미침

이번 국제해사협의회는 ▲ 탈탄소, 자율운항선박 등 국제해사 주요현안 논의, ▲ 국제해사기구 이사국 선거 대응방안 검토, ▲ 국제회의 대응 전략 전문가 특강 등으로 진행되며 약 60명의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다.

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“최근 국제해사기구는 친환경·탈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, 자율운항선박 협약개발 및 디지털화(e-Nav., PNT) 등 새로운 환경규제와 국제기준 마련을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.”라며, “이번 협의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해사기구 대응역량이 더욱 강화되고 주요현안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

참고

일정, 과거 사진 등

□ 주요 일정(잠정)

일정			세부 내용	비고
3.23. (목)	13:50~14:40	'50	○ (특강①) 국제 에티켓 등	초빙 강사
	14:55~15:25	'30	○ (토의①) '23년 주요 국제행사 및 회의 대응 방안 논의 - '한국해사주간 및 장관급 콘퍼런스' 개선 및 '제33회 총회' 대응 방안 논의	해사안전정책과 (자유 토의)
	15:25~15:55	'30	○ (발표①) 자율운항선박 코드 개발 및 전망	KMI
	16:10~16:50	'40	○ (특강②) 해사안전 국제협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	박광열 항로표지기술원장
	17:05~17:35	'30	○ (토의②) 제80차 MEPC 대응 전략 논의	해사산업기술과
3.24. (금)	09:15~09:40	'25	○ (발표②) 선박 및 선원 안전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 개발 현황	김형택 (한국조선해양)
	09:40~10:05	'25	○ (발표③) 선박 수중방사소음 기술 및 현황	설한신 (KRISO)
	10:20~10:50	'30	○ (발표④) 국제표준화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	KMC

□ 과거 사진

